

# 고용동향 브리프

2022

Vol.3

##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정보통신업 고용 추이와 현황

## 02

통계포커스  
청년 잠재구직자 동향



# 정보통신업 고용 추이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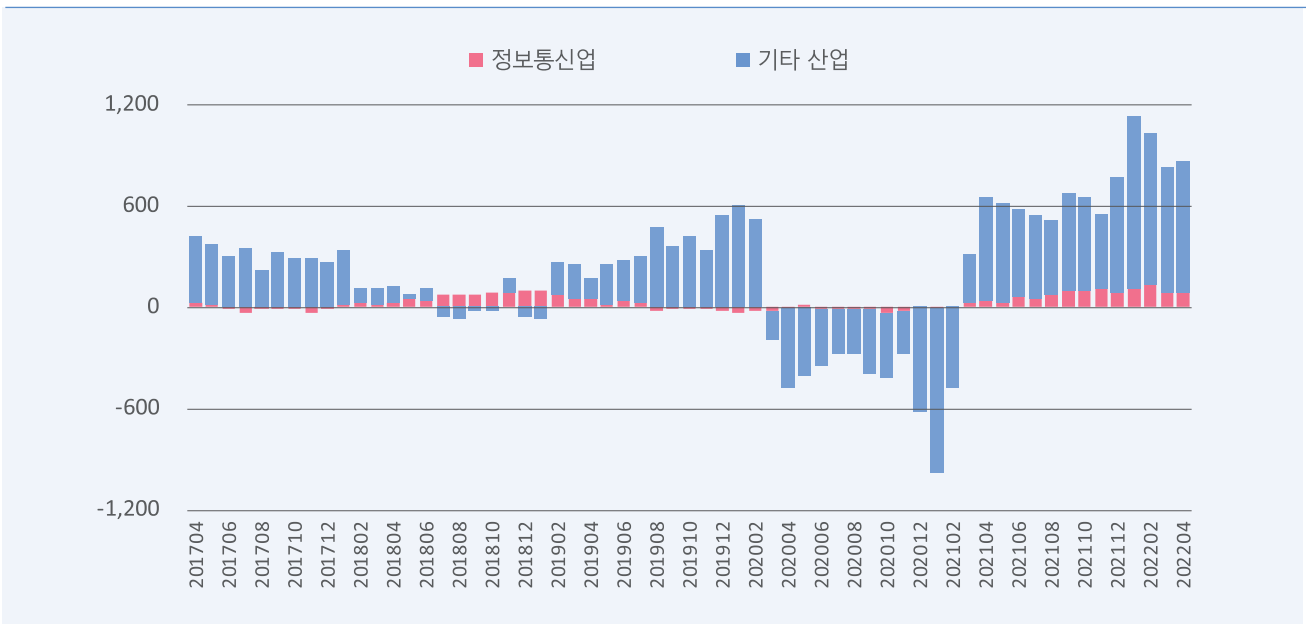
이정아\*

## 01 들어가며

- 2022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28,078천 명으로 1년 이상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의한 취업자 수의 순감소는 2020년 3월~2021년 2월까지 1년간 지속되었고, 현재까지 14개월째 큰 폭으로 계속 증가
  -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 수도 2021년 3월부터 증가하였으며, 2022년 4월까지 평균적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의 약 11.1%를 정보통신업이 설명
  - 전산업 취업자 수가 5.0% 증가한 지난 5년간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20.7% 증가하여 2022년 4월 현재 981천 명 수준으로 높아짐

그림 1 매월 취업자 증감 추이(산업별 누적)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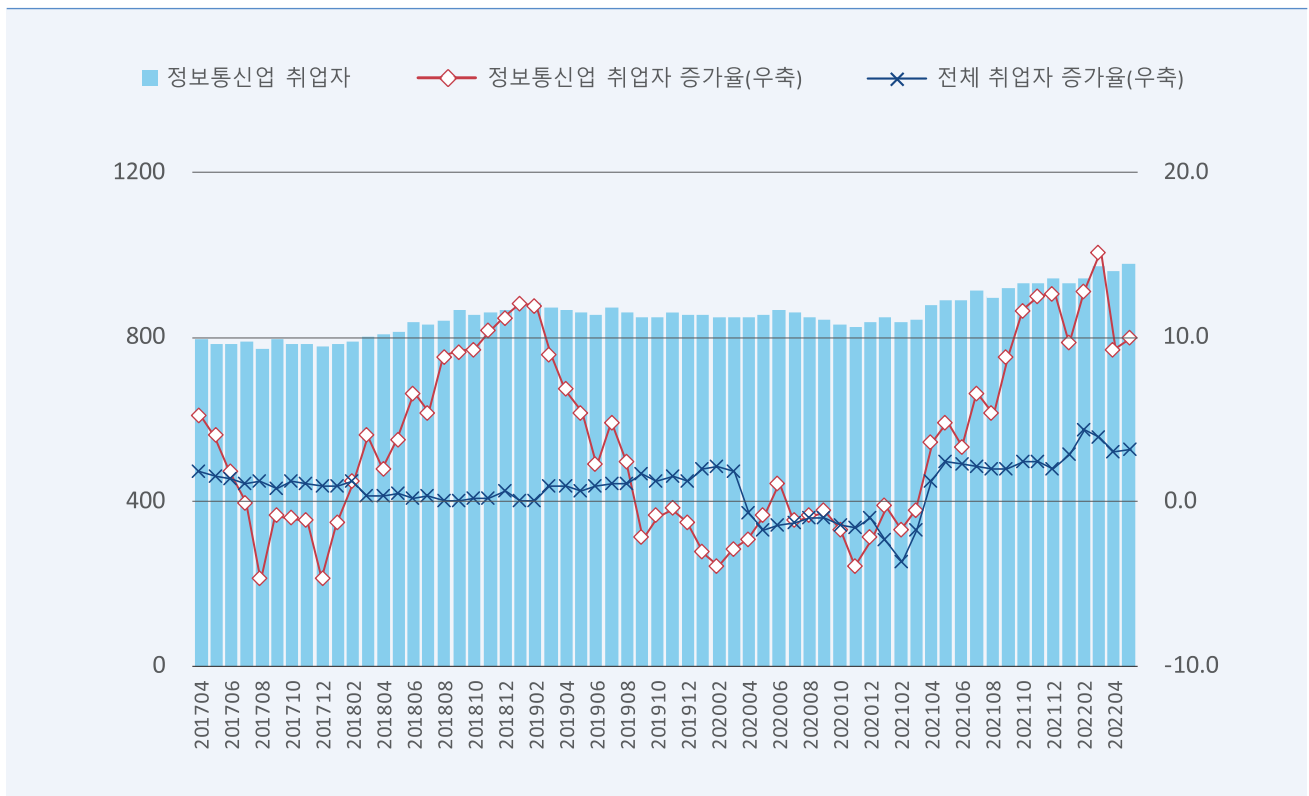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 원자료

\* 고용동향분석팀 부연구위원(faith0502@keis.or.kr)

-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기간에도 연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정부의 ‘보도자료’는 증가요인을 생산증가, 창업확산, 새로운 일자리 출현으로 분석<sup>1)</sup>
  - 2018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폭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상회
  - 정보통신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생산이 계속 증가하였고,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수도 빠르게 늘었으며, 프리랜서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
  - 본고는 정보통신업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3년 전 시기와 비교하며 최근 1년의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의 특징을 살펴봄

그림 2 정보통신업 취업자 및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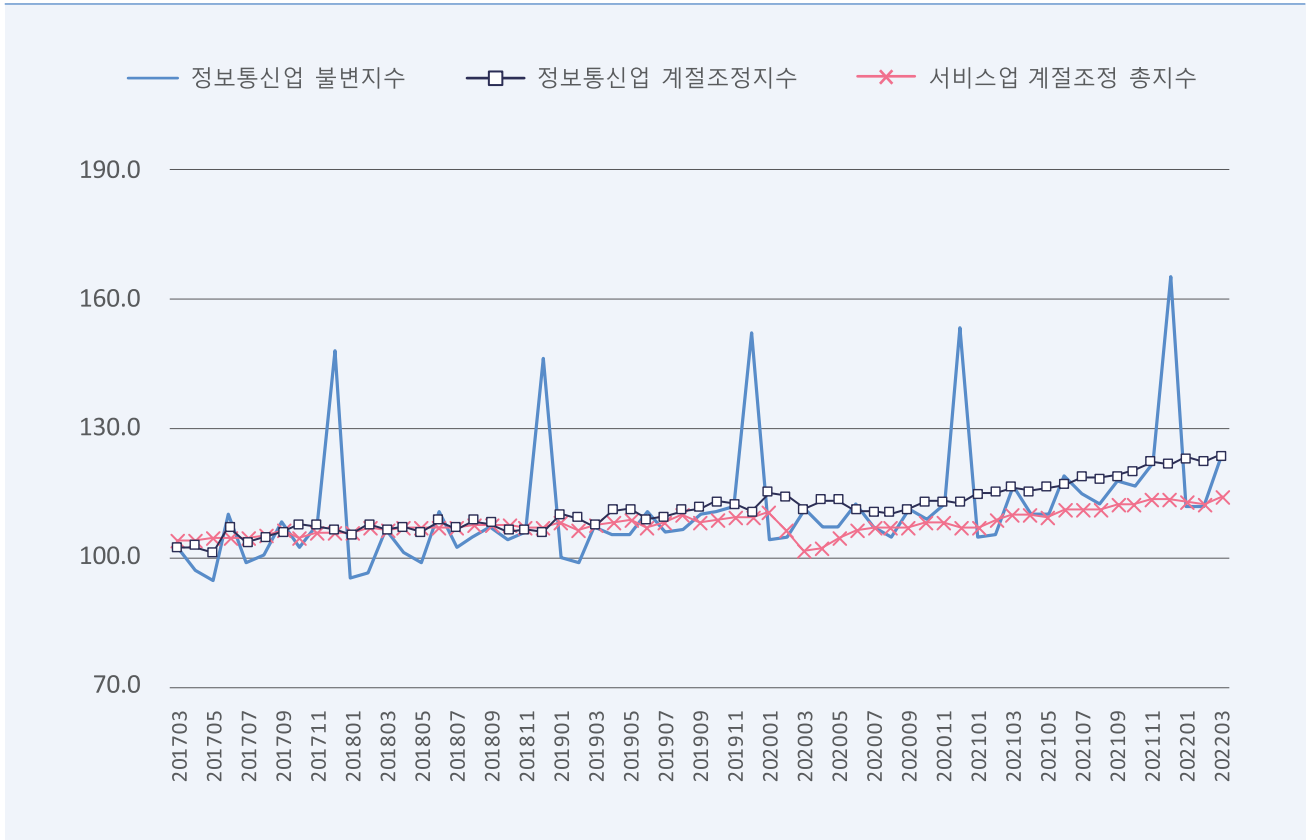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 원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5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17개월 연속 증가세” 2019.6.27.

## 02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 현황

그림 3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생산지수(2015=100.0)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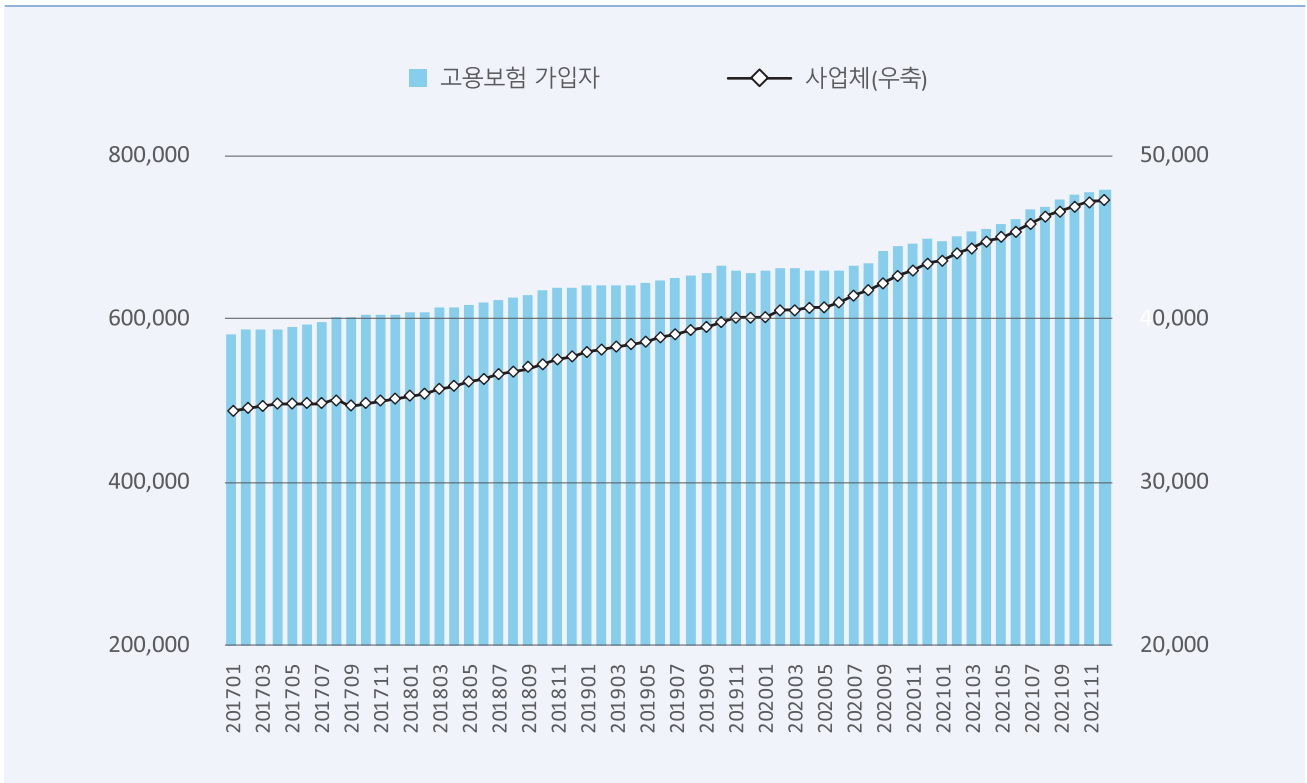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kosis.kr)

- 정보통신업에서 생산지수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크게 상회
  - 2019년부터 정보통신업에서 생산 증가 속도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증가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하여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그림 2]의 취업자 증가율과 [그림 3]의 생산지수를 함께 보면, 단순하게 생산 증대만을 핵심 선행 요인으로 하여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 증대를 견인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보도자료’가 언급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정보통신업 내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음
    - \* 고용보험 자료에서 정보통신업의 사업체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경향이 확인되는데, 2021년 12월 말 기준 사업체 수는 47천 개, 가입자 수는 758천 명([그림 4] 참조)
    - \* 사업체당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월 16.9명에서 2년 내 16.0명으로, 평균 사업체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경향

그림 4 정보통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와 사업체 수

(단위: 명, 개)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두 시점의 종사상 지위별 증감을 나타낸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
  - 각 연도 5월부터 이후 1년의 구간을 설정하여 비교하면,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어난 2018년('18년')보다 2021년('21년')에 평균 취업자 증감 규모와 증가율 모두 높게 나타남
    - \* '18년' 평균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폭은 70천 명(8.8%), '21년' 평균 증가폭은 83천 명(9.8%)
  - '18년'에 증가한 취업자의 87.9%인 61천 명, '21년' 취업자 증가폭의 95.9%인 80천 명이 상용직으로 증가

표 1 정보통신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구간명	기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17년'	17.5 ~ 18.4	651	62	2	19	54	2	790
'18년'	18.5 ~ 19.4	712	65	6	21	54	2	860
평균 증감		61	3	4	1	0	0	70
'20년'	20.5 ~ 21.4	715	60	3	17	54	1	851
'21년'	21.5 ~ 22.4	795	74	6	17	42	1	934
평균 증감		80	13	2	0	-12	0	8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 원자료

- '18년'과 비교하여 '21년'의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대는 특히 여성, 20대에 의해 견인됨(<표 2> 참조)
  - '18년'에는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의 증가폭이 컸으나 '21년'에는 여성 취업자의 증가폭이 남성의 5배 이상
  - '21년'에는 압도적으로 2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대
    - \* '21년'에 취업자 증가폭은 83천 명이었는데, 20대 여성 중에서만 57천 명 증가
  - '18년'에는 대졸 취업자가 전체 증가폭의 51.5%를 차지하였으나 '21년'에 37.7%로 낮아짐

표 2 정보통신업 인적속성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17년'	'18년'	'18'-'17' 평균 증감	'20년'	'21년'	'21'-'20' 평균 증감
전체		790	860	70	851	934	83
성별	여성	225	259	34	232	302	69
	남성	565	600	36	619	632	14
연령	10대	5	3	-2	3	4	1
	20대	177	202	25	180	240	60
	30대	279	297	18	287	305	18
	40대	229	247	19	254	250	-4
	50대	89	92	3	104	113	9
	60세이상	11	19	7	22	21	-1
학력	고졸이하	137	152	15	142	165	23
	초대졸	127	146	19	124	153	29
	대졸이상	526	562	36	585	616	3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 원자료

- 각 연도 8월의 정보통신업 취업자 고용형태별<sup>2)</sup> 증감을 나타낸 <표 3>에서 2021년의 취업자 증가는 정규직보다 기간제가 주도하였음이 확인
  -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8월의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폭보다 정규직에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 2021년 8월의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제 부문에서 가장 크게 증대
    - \* 고용계약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간제이지만 종사상 지위상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2021년 8월 기준 66.1% 수준임
  - 정보통신업 취업자 중 정규직은 규모나 비중 측면에서 모두 감소

표 3 정보통신업 고용형태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2017년	2018년	18-17 증감	2020년	2021년	21-20 증감
전체	794	866	72	843	917	75
정규직	595	670	75	637	658	21
* 한시직	95	92	-3	99	151	52
기간제	77	75	-1	96	144	48
시간제	28	25	-4	26	32	6
* 비전형	19	14	-5	12	25	14
호출근로	1	0	-1	0	2	2
특수고용	7	3	-4	3	8	6
파견	10	4	-7	5	8	4
용역	1	3	1	2	3	1
가내노동	0	5	5	2	4	2
비임금근로자	75	82	7	72	58	-1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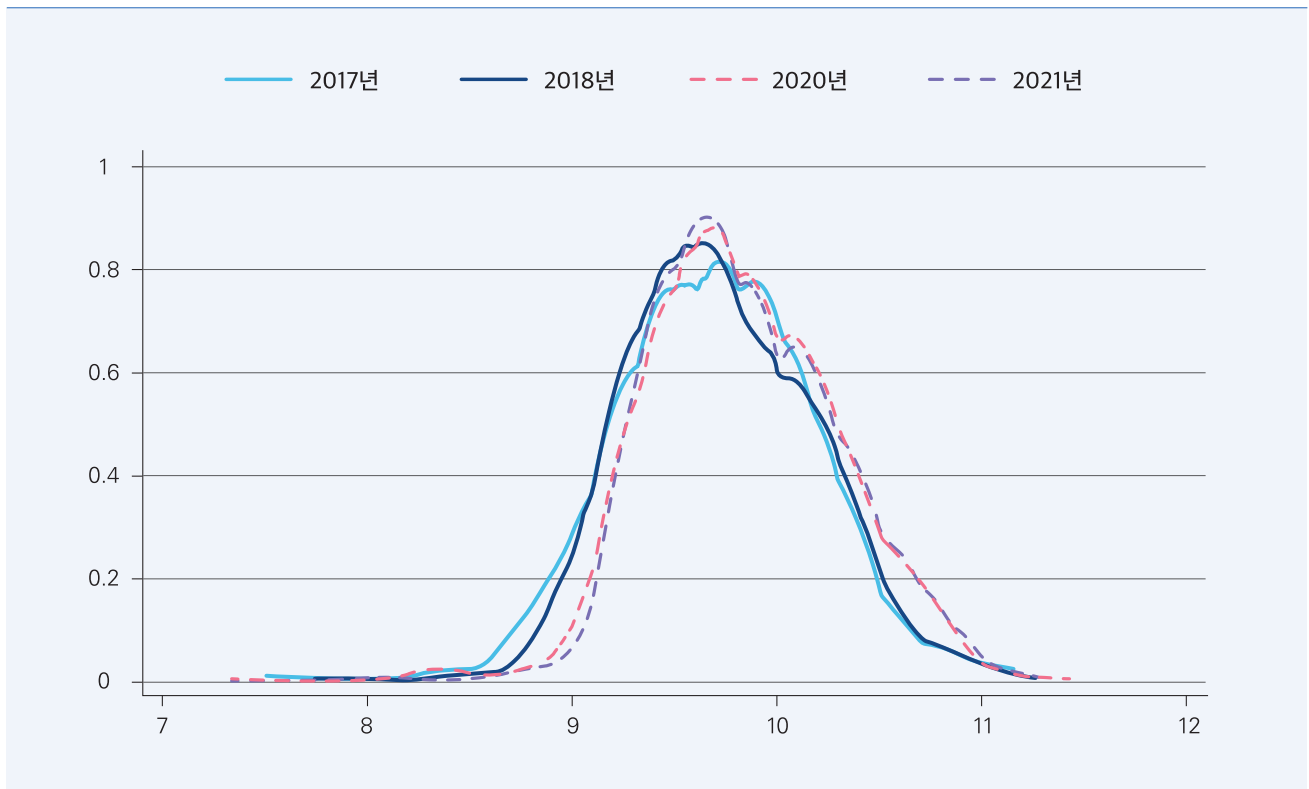
\* 고용형태 중 한시직과 비전형은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비정규직 구분으로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며, 다른 고용형태는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함

2) 산업 대분류 수준에서 고용형태별 구분시 표본의 규모가 작으므로 수치 해석시 주의 필요

### 03 정보통신업 취업자의 노동조건 변화

- 정보통신업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전산업 평균 대비 133% 수준에서 2021년 130%로 저하 경향
  - 정보통신업 임금노동자 시간당 임금은 2017년 8월 18천 원에서 2021년 8월에 21천 원으로 13.8% 상승
    - \* 같은 기간 전산업 평균 시간당 임금은 14천 원에서 16천 원으로 16.6% 상승
  - 정보통신업에서 평균 임금 수준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그림 5]에서 보듯이, 2017년과 2018년의 임금분포가 상향이동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듯이 2020년과 2021년의 임금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남
    - \*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는 정보통신업 평균보다 낮은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약간 더 늘거나 전반적인 임금분포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취업자가 증대한 것으로 보임

그림 5 정보통신업 임금노동자 명목 시간당 임금 분포(커널밀도함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현재 직장에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를 구분하여 현황을 나타낸 <표 4>에서 2018년보다 2021년에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증대되었음을 확인
  - 2021년 들어 취업자가 현직장에서 12개월 미만 근속한 신규 입직자의 비중이 27.1%로 증가
    - \* 평균 노동시간은 짧아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높아졌으나 스스로 평가하는 계속 근로 가능성은 낮아짐
  - 원하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고용계약 기간 만료 또는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 마감 때문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증대(그림 6 참조)
    - \* 12개월 미만과 12~35개월 근속 일자리에서 두 사유에 의한 계속 근로 불가능 비중이 증대
    - \* 2021년에 12개월 이상 근속 일자리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증대
  - 모든 근속기간에서 임시·기간제의 비중이 늘었고, 여성 비중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중에서만 증가
  - 연령대별로 20대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2018년보다 2021년에 20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

표 4 정보통신업 임금노동자 근속기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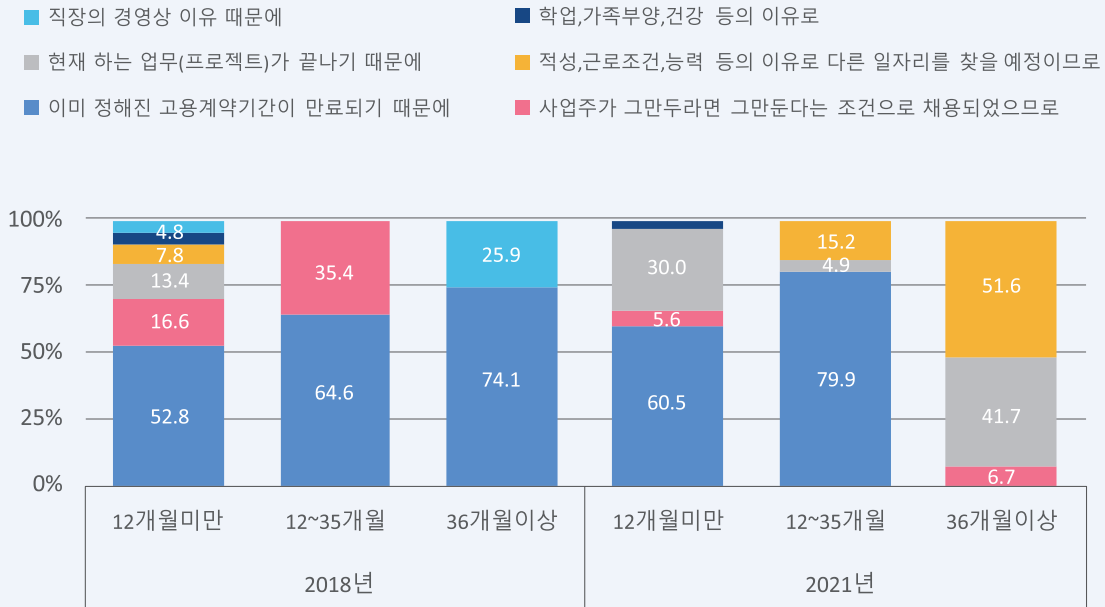
(단위: %, 만 원, 시간)

근속기간	2018년			2021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	
근속기간별 분포	22.3	18.6	59.1	27.1	25.1	47.8	
시간당 임금	1.4	1.6	2.1	1.7	1.9	2.4	
월임금	245.9	281.7	380.7	277.9	335.1	422.1	
주간 노동시간	39.1	40.9	41.6	38.9	40.2	40.6	
고용보험 가입률	85.0	96.0	95.7	86.3	95.6	93.4	
계속근로 가능	84.2	97.2	99.7	80.5	96.1	98.4	
고용 형태별 분포	정규직	65.3	80.5	94.7	58.4	78.4	86.0
	임시·기간제	22.3	13.8	3.5	28.0	18.1	9.6
	시간제	8.4	3.2	1.1	10.0	1.8	1.1
	호출근로	0.0	0.0	0.0	0.7	0.0	0.0
	특수고용	0.3	0.8	0.3	1.5	0.2	1.1
	파견	0.9	0.0	0.4	1.0	0.1	1.4
	용역	1.1	0.5	0.0	0.4	0.9	0.0
	가내노동	1.8	1.2	0.0	0.0	0.5	0.7
인적 속성별 분포	여성	41.7	36.8	25.9	53.2	33.7	23.7
	20대	53.1	45.1	8.2	50.8	36.7	7.7
	30대	30.3	29.1	38.8	27.1	40.9	33.2
	40대	10.3	21.3	37.2	13.5	16.1	36.6
	50세이상	5.8	4.5	15.8	6.9	6.3	22.5
	고졸이하	27.6	16.1	10.9	24.3	13.5	16.2
	초대졸	14.7	19.4	17.2	18.4	18.9	12.5
	대졸이상	57.6	64.5	71.9	57.2	67.5	71.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그림 6 정보통신업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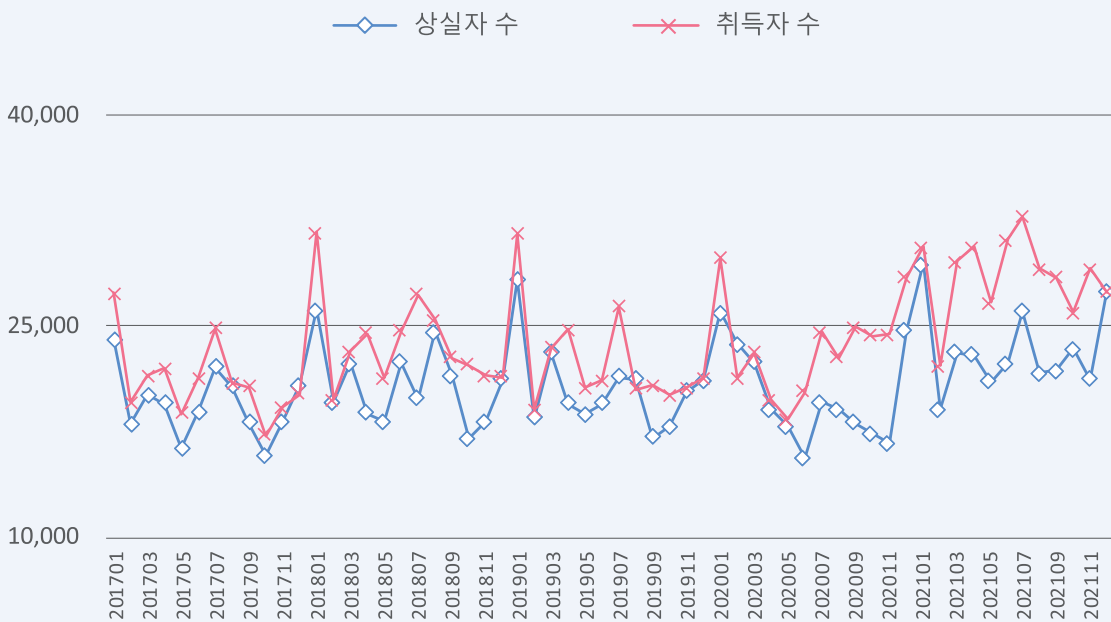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주 | 응답자의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정보통신업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와 상실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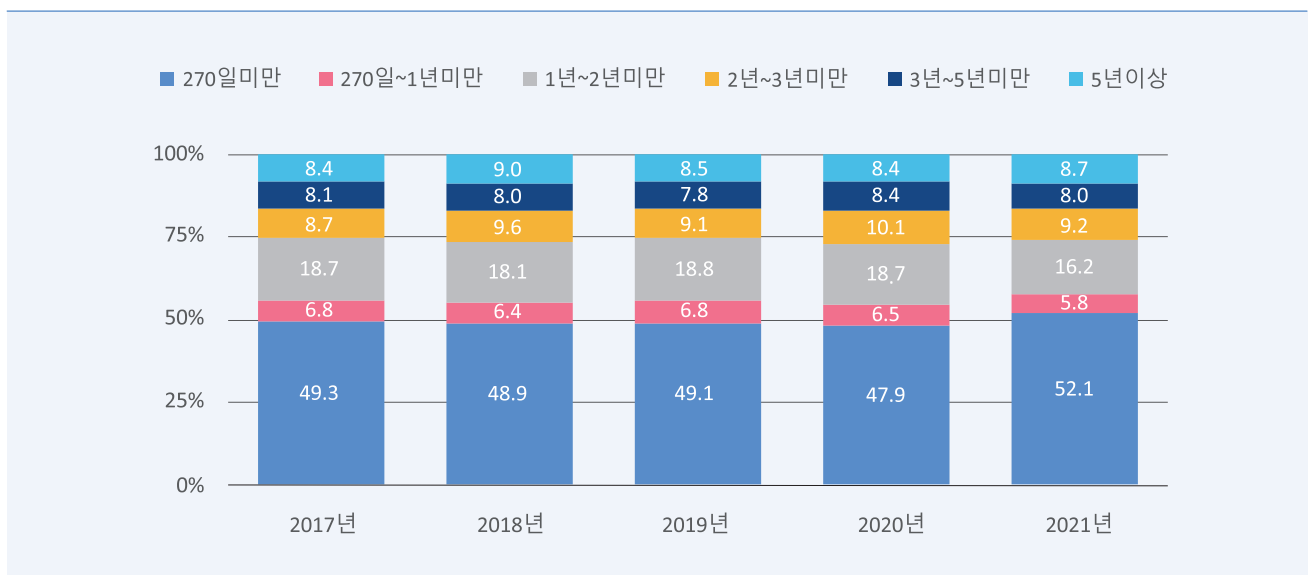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 2020년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와 상실자가 모두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취득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입자 증대([그림 7] 참조)
  - 상대적으로 상실자의 비중이 적어지는 경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남
  - [그림 8]은 정보통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격 상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일자리에서 근속기간의 분포를 나타냄
  - 2021년에 정보통신업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실자 중 근속기간 270일<sup>3)</sup> 미만의 근속자 비중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52.1%
  -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는데도 1년내에 일자리를 상실한 비중이 2020년 54.4%에서 2021년 58.0%로 증가하는 등 정보통신업 내에서 입이직에 의한 노동이동이 더 빈번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음

그림 8 정보통신업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자의 근속기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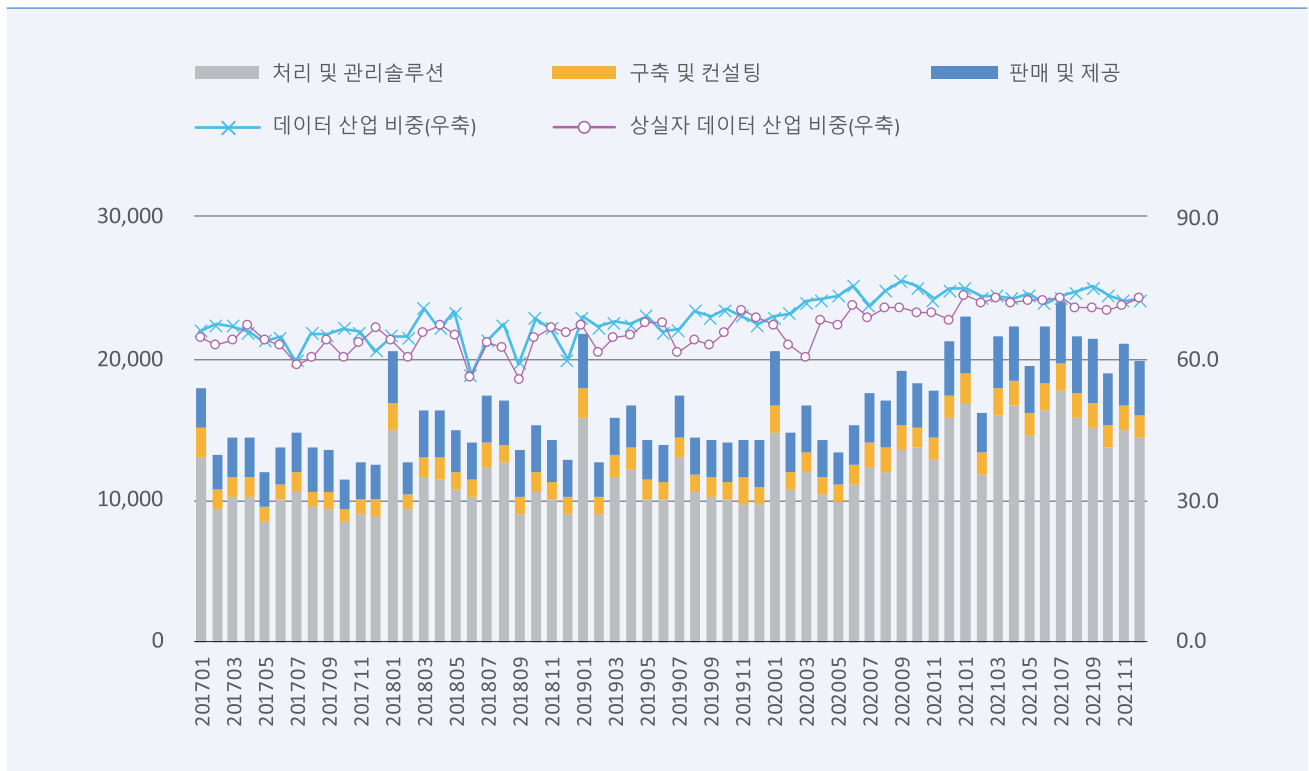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3) 상실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상실전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영업일 270일의 근속기간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의 근사치로 볼 수 있다.

- 최근에 정보통신업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와 상실자 증대에 데이터 산업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임
  -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sup>4)</sup>으로, 디지털 뉴딜 전략의 핵심 부문임
  -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분류를 기준으로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업, 데이터 판매 및 제공·서비스업 등 세 개 하위 산업으로 구성됨
  - 정보통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 중 데이터 산업 취득자의 비중은 2021년 12월 기준 72.5%, 상실자 중에서는 73.0%로 계속 증가
  -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업의 일자리가 증대했다고 해석 가능

그림 9 데이터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 수와 비중

(단위: 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 <표 5>는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2018년과 2021년에 일자리를 상실한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자의 속성별 분포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상실자 비중이 증대
  - 정보통신업에서 1년 내 일자리 상실자 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상실 비중이 2018년보다 2021년에 더 높아짐
  - 1년 이상 근속 후 상실한 경우, 전직에 의한 상실 비중이 증가
  - 인적 속성별로는, 전체 정보통신업에서 분포와 마찬가지로 여성, 50대 이상 상실자 비중이 높아짐

4) 2021년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정보통신업 중에서 데이터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정보통신업 전체 상실자의 특성을 데이터 산업에서 상실자 특성이 대표
  - 데이터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1년 내 일자리 상실자 분포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여성과 20대의 비중은 더 적게 나타남
  - 상실 사유별로 보면, 전직에 의한 일자리 상실 비중이 정보통신업 내 비데이터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보임
  - \* 데이터 산업에서 이직과 전직이 활발한 상태임을 방증하며, 특히 장기 근속자일수록 전직에 의한 상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5 정보통신업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자 속성별 분포

(단위: %)

근속기간	2018년			2021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
<b>근속기간별 분포</b>	55.3	27.7	17.0	58.0	25.3	16.7
여성	45.2	38.3	32.2	47.3	40.4	33.0
20대	51.6	38.7	13.0	51.0	37.9	14.3
30대	25.0	37.4	47.2	25.9	36.2	41.5
40대	14.7	17.4	28.2	14.0	17.3	26.5
50세이상	5.8	6.0	11.6	7.5	8.2	17.7
<b>상실 사유별</b>						
전직	66.1	66.5	63.7	63.5	71.2	70.5
개인사정	1.1	2.1	3.2	0.9	1.8	2.2
회사사정	11.8	21.5	27.7	7.2	15.1	19.4
정년	0.0	0.1	1.8	0.0	0.2	5.1
계약기간 만료	20.0	9.1	2.4	27.7	11.0	1.9
기타	0.9	0.8	1.1	0.6	0.7	1.0
<b>데이터 산업 내 분포</b>						
<b>근속기간별 분포</b>	54.4	27.8	17.8	58.7	25.4	15.9
여성	43.9	36.7	32.2	46.3	38.0	31.6
20대	43.9	36.4	13.5	48.5	36.6	15.7
30대	28.9	38.3	49.5	26.6	36.8	44.5
40대	18.1	18.6	29.0	15.4	18.1	27.6
50세이상	6.8	6.0	8.0	8.1	8.1	12.2
<b>상실 사유별</b>						
전직	68.0	69.9	68.8	64.8	74.1	77.2
개인사정	1.3	2.2	2.9	0.9	1.8	1.9
회사사정	10.5	17.9	24.4	6.7	13.9	17.3
정년	0.0	0.0	0.4	0.0	0.1	1.0
계약기간 만료	19.2	9.1	2.4	27.0	9.4	1.6
기타	1.0	0.9	1.1	0.6	0.7	1.0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 04 요약과 함의

-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부터 노동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증대**
  - 최근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대는 기간제 일자리 증가에 의해 추동되었음
  - \* 중사상 분류별로 상용직으로 구분되지만 계속 고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간제 일자리가 가장 크게 증가
  -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3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 20대 취업자 증대가 더 두드러짐
  
- **임금 등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가 늘며 다른 산업 일자리 평균과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
  - 정보통신업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전산업 평균 대비 133% 수준에서 2021년 130%로 근소하게 격차가 감소
  - \*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는 기존의 임금분포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취업자가 증대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들어 취업자가 현직장에서 12개월 미만 근속한 신규 입직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높아졌으나 스스로 평가하는 계속 근로 가능성은 낮아짐
  - \* 고용계약 기간 만료 또는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 마감 때문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증가
  
- **정보통신업 내 일자리의 증대와 빈번한 입이직으로 인해 정보통신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와 상실자가 모두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취득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입자 증대**
  - 특히 정보통신업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자와 상실자 증대에 디지털 뉴딜 전략의 핵심 부문인 데이터 산업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업 중에서 데이터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정보통신업 전체 상실자의 특성을 데이터 산업에서 상실자 특성이 대표
  - 1년 내 일자리 상실자 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상실 비중이 높아졌고, 1년 이상 근속 후 상실한 경우에 전직에 의한 상실 비중이 증가

- 현재까지 정부 정책과 지원으로 데이터 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취업자도 계속 증가
  - 신규 생성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승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 또는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지금은 필요한 고용이 추후 가져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므로, 기간제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정보통신업 일자리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현재 임시·기간제 중심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 또는 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보통신업에서 일 경험을 가진 취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정보통신업 내 커리어를 유지하고 계발하는 연계 서비스의 제공과 홍보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청년 잠재구직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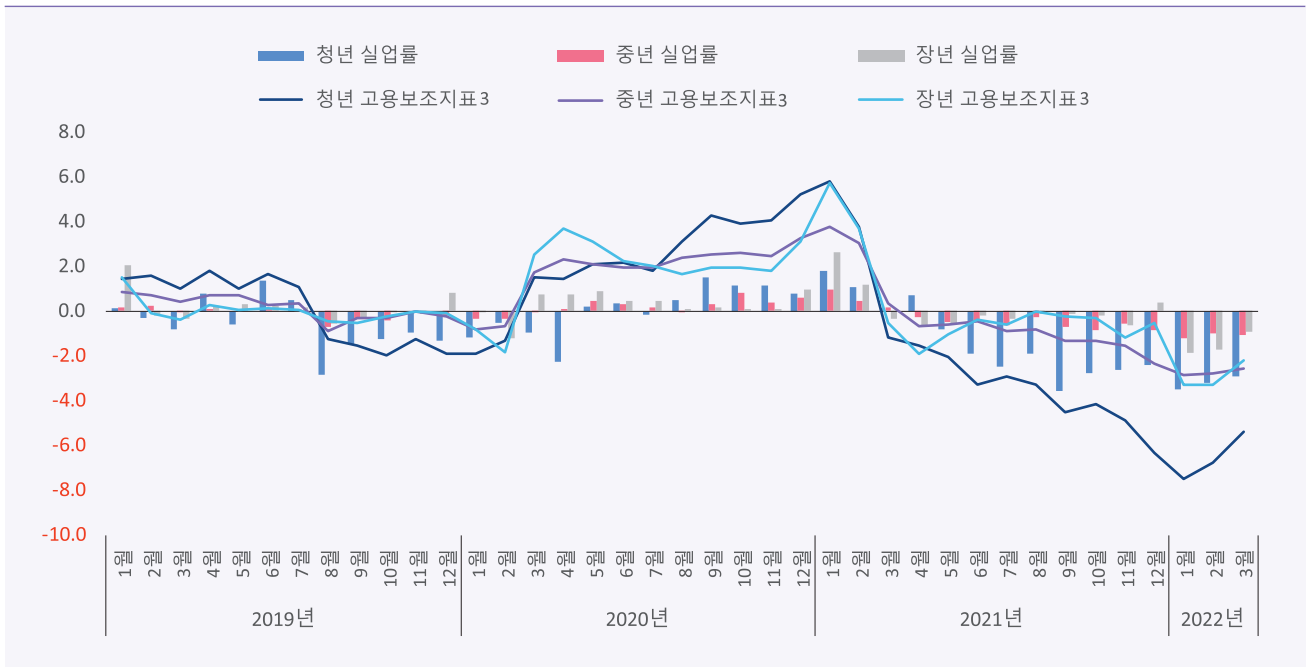
박비곤\*

## » 최근 청년층(만 15-29세)의 고용보조지표3<sup>1)</sup>과 실업률이 크게 감소

- 2022년 3월 청년층(만 15-29세) 고용보조지표3의 감소폭은 5.4%p로 중년층(만 30-54세)과 장년층(만 55세 이상)의 감소폭 2.5%p, 2.2%p 보다 훨씬 큼
- 실업률 감소폭 역시 청년층은 2.9%p, 중년층과 장년층은 각각 1.0%p, 0.9%p로 청년층이 더 크게 하락

그림 1 연령별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3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 %p)



| 주 | 고용보조지표3=([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연구원(cenne08@keis.or.kr)

1)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와 함께 ①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했던 잠재구직자, ②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불가능했던 잠재취업가능자, ③단시간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이 가능하고 희망했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추가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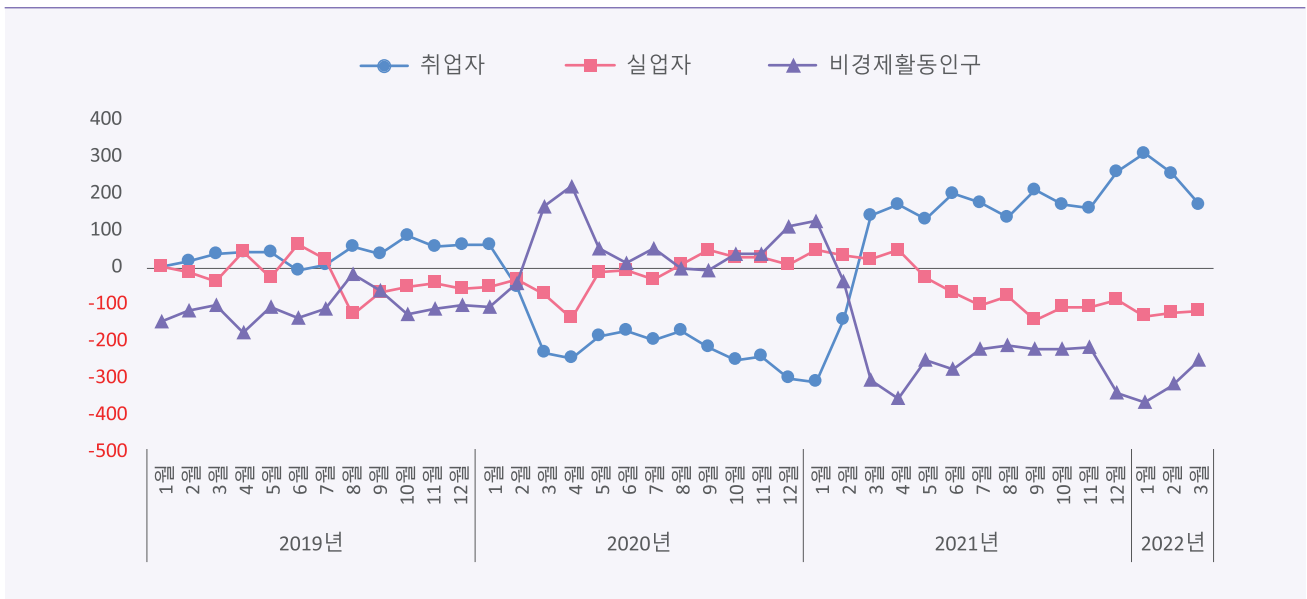


## » 청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며 청년 취업자는 증가 흐름 지속

-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한 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개월 연속 증가
- 실업자는 2021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

그림 2 청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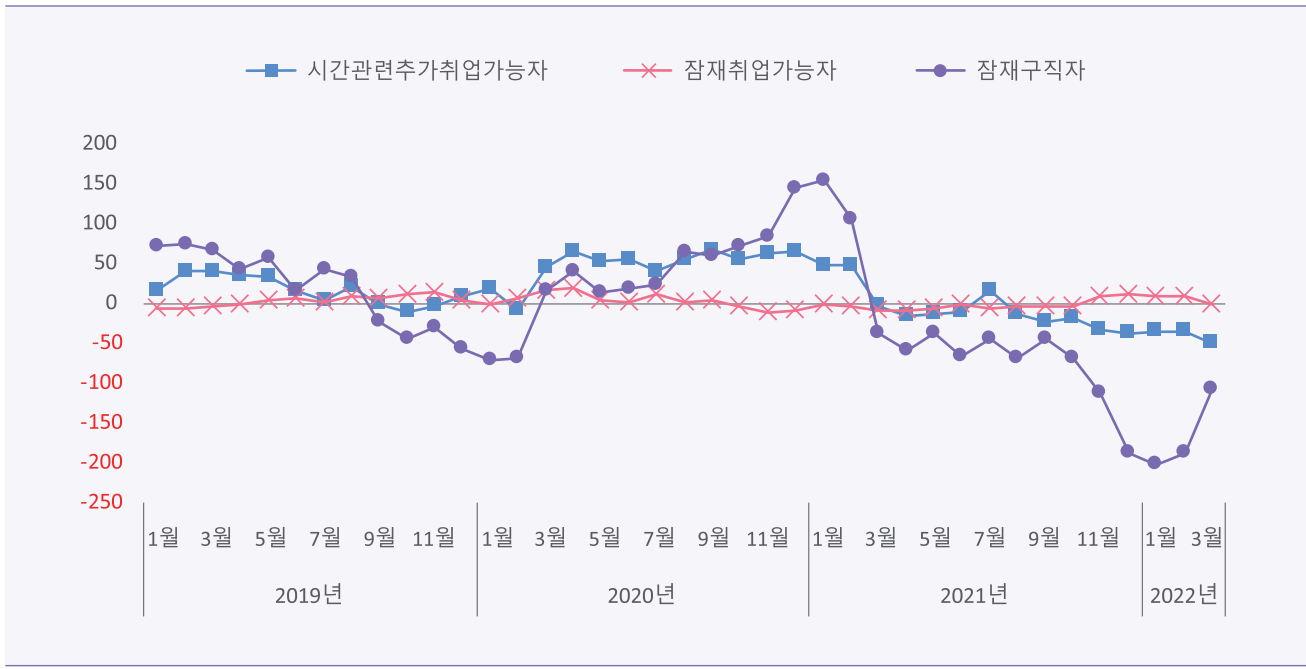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 그림 3을 보면 최근 청년 고용보조지표3의 감소는 잠재구직자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 잠재구직자는 2021년 3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이며 2021년 11월 이후로는 100천 명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
- 2022년 3월 청년 잠재구직자는 107천 명 감소했는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 252천 명의 42.4%를 차지
- 2021년 11월~2022년 2월의 잠재구직자 감소 정도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증가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큰 수준이며 2022년 3월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감소폭이 축소
- 잠재취업가능자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2022년 3월에 각각 48천 명, 1천 명 감소

그림 3 청년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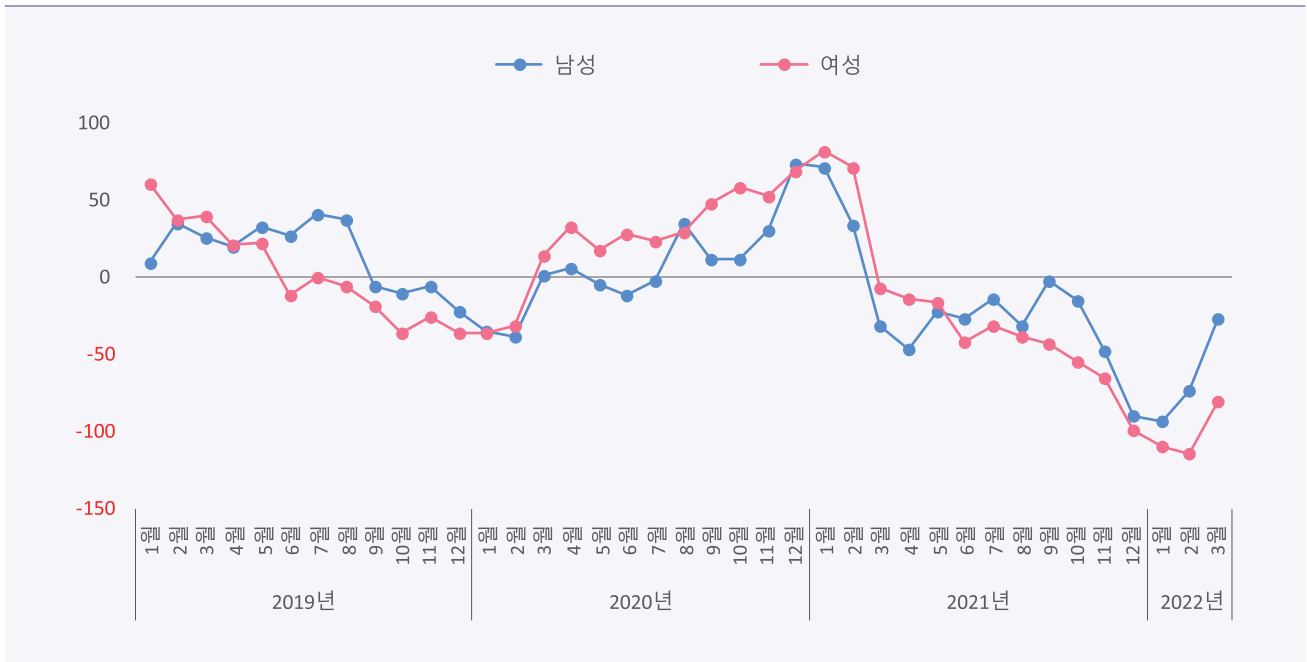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성별로 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잠재구직자가 감소

- 잠재구직자 감소가 시작된 2021년 3월 이후 초반 3개월은 남성의 감소폭이 더 컸으나 2021년 6월 이후 줄곧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의 감소폭을 상회
- 여성의 잠재구직자 감소폭은 2022년 2월에 113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남성(73 천 명 감소)과의 격차도 컸음
- 남성과 여성 모두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022년 1, 2월의 감소폭이 컸으며 3월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감소폭 역시 축소

그림 4 청년 성별 잠재구직자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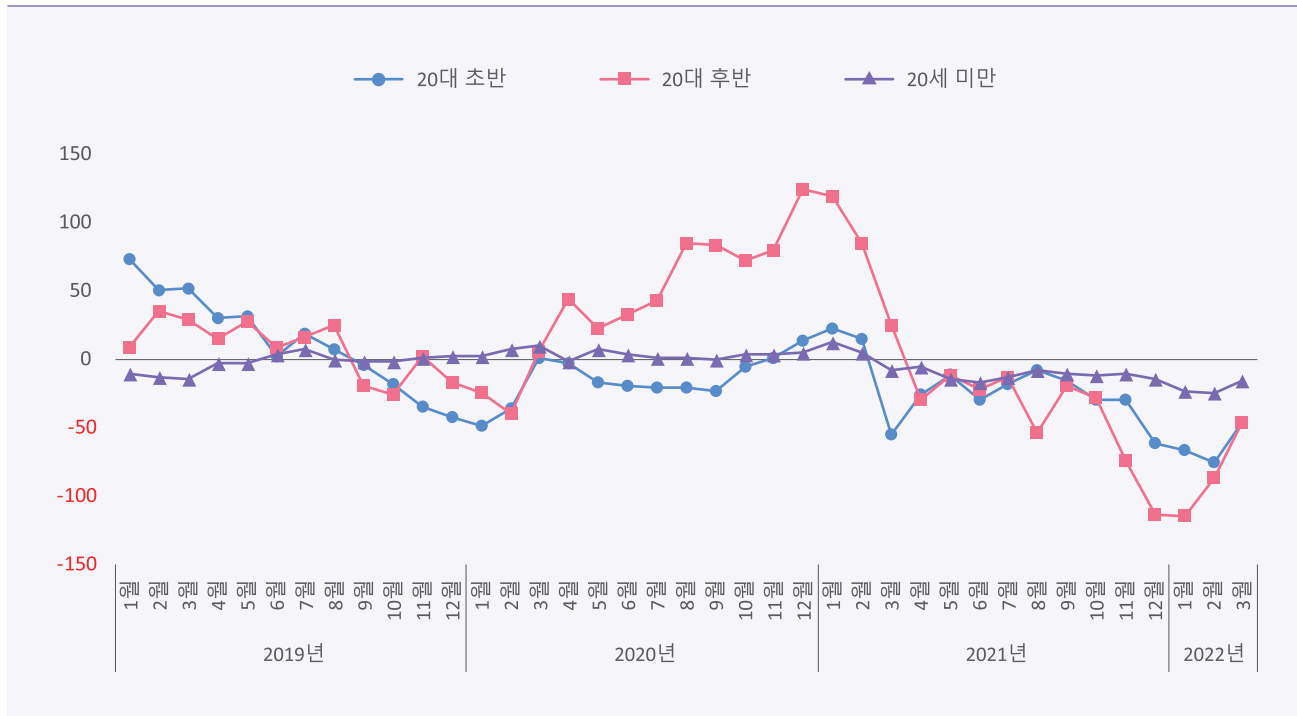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2021년 11월~2022년 2월에 청년 잠재구직자 감소폭이 기저효과 이상으로 컸던 이유는 20대 초반과 20세 미만이 전년 동월의 증가폭보다 큰 감소를 기록했기 때문

- 20대 후반은 2022년 1월과 2월의 감소폭이 114천 명, 86천 명으로 2021년 1, 2월의 증가폭 119천 명, 85천 명과 비슷
- 20대 초반의 2022년 1, 2월 감소폭 66천 명, 76천 명은 2021년 1, 2월 증가폭 23천 명, 15천 명보다 훨씬 크며 20세 미만 역시 전년동월의 증가폭보다 큰 감소폭을 보임
- 2022년 3월 20대 후반의 감소폭은 46천 명으로 전년동월의 증가폭 25천 명을 상회

그림 5 청년 세부 연령별 잠재구직자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표 1의 비구직 이유를 통해 청년 잠재구직자의 증감 원인을 가늠할 수 있음

- 잠재구직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했고 가능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을 의미
- 비구직 이유별로 살펴본 결과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의 비구직자들이 최근 3개월의 감소를 주도했으며 전년동월의 증가 또한 해당 이유들을 중심으로 증가
-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거 같아서”의 증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가 회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청년 비구직 이유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21년			2022년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41	51	15	-42	-44	-32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83	51	5	-64	-55	-37
3.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20	10	-11	-26	-11	-2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36	-45	-52	-8	-5	2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것 같아서	-1	-1	-1	0	0	0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8	19	15	-28	-30	-21
7. 육아	2	-0	-3	-1	1	3
8. 가사	-0	-0	-0	0	2	0
9. 통학	2	7	-1	-14	-16	-2
10. 심신장애	1	-1	-2	0	0	-1
11. 기타( )	14	14	-3	-21	-2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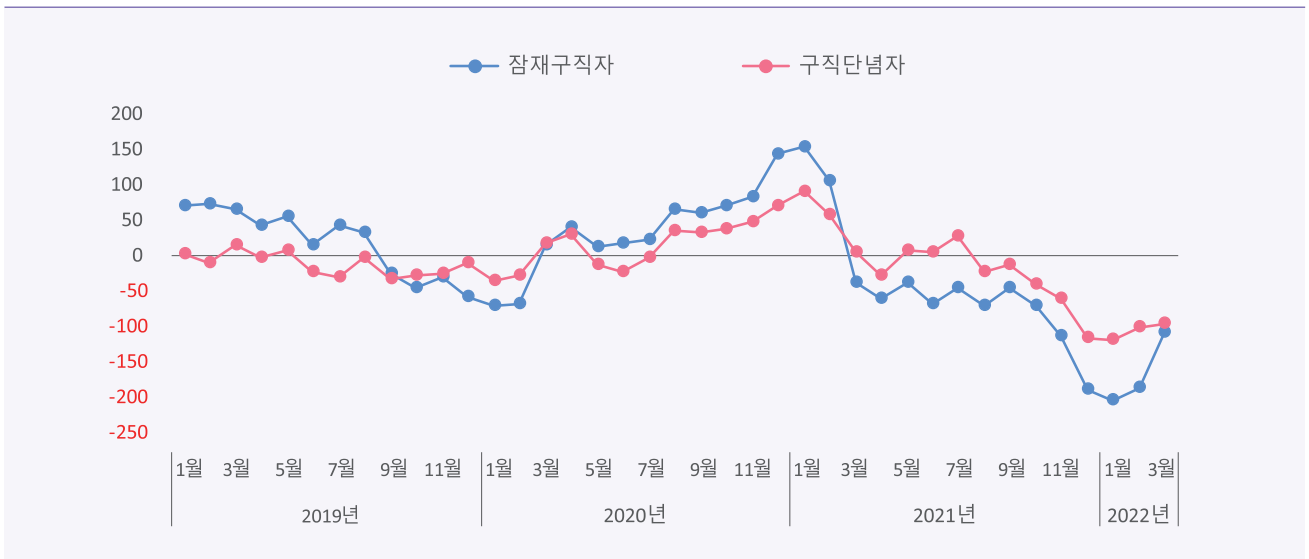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 최근의 잠재구직자 감소는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발생

- 구직단념자는 잠재구직자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으며, 비구직 이유가 1~6에 해당하는 이들을 의미
- 비구직 이유의 증감에서 1, 2, 6의 비중이 큰 만큼 잠재구직자 증감 내 구직단념자의 비중 역시 큼
- 최근 청년 채용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구직단념자 역시 감소 흐름

그림 6 청년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원자료

# 고용동향 브리프

2022

Vol.3

